



김영환 선생

김영환 선생은 1910년 11월 23일에 원동 변감 니콜스크-무쭈리스크시 (당시 한인 명칭으로 소왕령) 에서 철도 노동자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김선생의 부친은 1914년에 수칭 한광 (현재 발지산스크)에 서 1914년 부터 1920년까지, 광부로서 일하시였으며, 1920년에는 나호드카 항구에 이주하여 가시에서 어장 노동자로 일하시였다. 김선생은 1924년에 초학교를, 1928년에 초중을 나오시고 아버지의 급격한 사망으로 인하여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 나호드카 북동 노동자로 일하시다가 1931년 가을에 집을 떠나 원동변감의 두드 하바롭스크 시에 가서에서 경제 계획대학 노동학생부에 입학하여 1933년까지 공부하시요. 1934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국립 종합대학 동양학부 중어과에 입학하여 공부하였으나 1937년 한인 강제이주와 관련하여 대학 공부를 중단하고 까자흐 공화국에 실려와 아스트라한 시에서 볼프기 가공공장에서 한인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일꾼으로 일하시였다. 강제이주로 인하여 그곳까지 실려온 한인 노동자들은 노동에 하고 있는 한 배양은 사 먹을 수 있으나 밥이 그리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많은 한 인들은 노자돈을 벌어가려고 자기 비용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

하여 가곤 하였다. 김영환 선생도 이런 어난을 함평  
에서 2년간 선생하시다가 본청리 동생들을 모신 중아시아  
타슈켄트주 공화국주역이 불세벽이 고향으로 어루하여왔다.  
이곳에 오서서 김 선생은 동 협동조합내 초중학교 교장으로  
1944년 까지 일하시곤 그 후 1945년 10월말까지 우크  
라이프 공화국 한인극장 당조직원 겸 부지배원으로 일하시었다.



사진은 김영환 선생과 사촌님 유승라와 함께  
1944년도에 타슈켄트에서 촬영한 것이다.

김영환 선생은 1945년 10월에 소련군 군사동원부 명령  
을 받고 북한에 유류하고 있는 25군단 정치부 관할 하에  
도착하게 되며, 주로 평양에서 출판물 계층에서 일하시  
게 되었다.

1945년 11월 부터 1948년 12월 까지 «조선청년»  
사 부주필로, 1948년 말부터 1954년까지 «소베트신보사»  
에서 문화 교정원으로 일하시였으며, 다음 1954년 부터 19  
56년까지 다시 «조선청년사» 부주필로 일하시였다 그 후  
1956년 부터 1958년 까지 공화국 광부내 출판물 관리부  
및 노동지도부 부장으로 일하시였으며, (내각 정보국  
제 9부, 부장으로 일하시였다) 평양에 계속 계시였다.





김명환 선생이 « 조국 천선 » 신문사 부주필로 재직시  
1954년 사회주의 출판절에 대한 기념 평특시 보고대회에  
서 기념보고를 하고 계시는 김명환 선생 모습.

1958년 부터 1960년까지 김명환 선생이 북한에서 활동  
하시던중 가장 최고 직위에서 사임하신 때였더라. 어당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무위원회 위원장 최용건의 보  
좌관으로 계시었다. 이 당시에 벌써 대부분 소련출신 간부들은  
철적, 최단 당하는 때였으나 김일성의 간교한 간부 정책에  
의하여 높은 책임적 직위에 있던 간부들은 전부다 가면서 몇명의  
간부는 형식적으로 추세우고 봉급도 높이고, 군사간부들은 군사칭호도  
높이면서 부분적 책임적 부차 직위에 임시로 임명되었다가 그 다음  
1960-61년에 영-영 가 버리었다. 이 당시에 내 각 복수상  
박의왕어는 동촌 협동조합에 다녀라서 상임위원회 김두봉 선생  
과 같은 처지에서 당 두엄 죽지계를 지고 단나다가 지방  
로 동당 열성자들에게 배 밧아 죽는 때였다. ~~고 동당 열~~



성지들은 이 고공간부들을 로동당 중앙의 지시대로, 말로는  
 하부 협동조합에 내려가 재교양을 받으라 하고, 협동조합에  
 서 제일큰 족지계에 똥두엄을 나르라고 하고는, 족지계실린  
 짐이 너무나 무거워 눈두렁에 넘어지면 부축하여 일으켜세워  
 줄대신에 밭길도 차면서 « 중앙에서 소포기에 이밥만 먹고살던  
 놈들아! 협동조합일이란것을 좀 알아야 하지 » 하면서 신변  
 무서, 야길까지 대군화였다 그 결과에 협동조합에 재교양  
 받는다고 내려보낸 간부들은 전부다 각 협동조합에서 비참한  
 최후를 보는 동시에 어린타 들어가 가족이 전부다 멸망하엿  
 던바, 그중 박의원 부부상이나 허익 광학교 교장이나, 농정  
 치국 극광 최종학이나, 로동당 부사 박태권, 최고인민  
 회의 상임 위원장 김주봉 선생도 다 그런을 멸을 면치  
 못하였다.



사진은 1956 3월에 김선생이 내각 정보국 제9부장  
 으로 제 실시 촬영한 것이다. 좌로부터: 전선 군사위원 김철우, 제7  
 군단 군사위원 리충익, 김영환 선생, 군단사령관 류경우, 군단  
 + 참모장 등 장군들이다



조선 출신 간부들 중 다른 간부들을 따면서 이끼로 취세  
 무면서 맞이막 끝까지 리용당한 간부들은 김주환, 유성철, 김  
 영환. 정학을 신생도인바, 이것은 아마도 단번에 다 버여 던질  
 수 없었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것은 맞이막까지  
 멀여가려 남겨두었던 일부간부들은 김일성의 간교한 수단 «자  
 기 손으로써 저이른가 리 집어 들으며 까부시라는» 정책에 따  
 라 일부는 그들에게서 먼저 숙청한 간부들의 재로 제공에 리용당  
 하였으며, 일부는 중국 사상검토 운동에서 리용한 «훈베이빈» 혁할  
 에 리용하였던바, 사상검토 몇명간부들에 대한 총회에서는 이렇게  
 리용당한 간부들에게 천차적 언권을 주어 노동당의 간부숙청의 기본  
 목적을 아주 쉽게 해결할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출신 양기연  
 이는 체신성 사상검토 총회에서 조선출신 부상을 철적, 경제사 리로 파견  
 하리고 호론하였으며, 민족보위성 사상검토 총회에서는 유성철  
 정학준어가 조선출신 간부들에 한하여서는 제일 먼저 언권을 가  
 지고 - 철적, 경제, 군사 재판에 회부하라는 결론도 정교, 하였다,  
 그러나 이 간부정책의 김일성의 라출에 걸린 이들은 맞이막  
 에는 그들에게도 조선노동과 그의 인자한 수령 김일성의 처단  
 의 시간이 돌아와 정학준어는 민선군대내 고위간부들의 손에  
 의하여 대종강 리역감은 장소에서 투장 당하리고 말았으며,  
 이것을 목격한 유성철이도 급동히 조선 대사관을 흥하여  
 조선에 망명하리고 말았다.

조선출신 간부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전부다 어떠한 편견적  
 이나 종파주의적 경향이나 또는 자기 전우들을 행복케 깎아  
 내리워 구덩이에 차넣고 자기가 올라서던가 또 김일성  
 에 특별히 아꼈으며 자기가 특별히 높여 등용 되려든  
 사상은 누구에게나 없었다. 이렇게 순박하고 정직하  
 게 교양된 간부들은 자기가 김일성에게 리용당하리면서  
 또 리용당하리면서도, 리용당하는 줄은 모르면서, 12년처  
 유에는 그들에게 대하여 사상검토 지도원들이 물으면 물  
 는대로 쉬운 재료를 대주리, 또 물리면 또 아는대로 다



다 대머리인 하였으나, 그들이 간부들에게 대하여 특별히 연구<sup>6</sup>  
 하지 아니한 이상 특별히 새것을 조작해 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렇게 막이막 실골까지 다 풀어 버고서는 그가 필요 없는 시간  
 이 닦쳐오면, 그들을 어어에터 불러가 없으면, 어어에 해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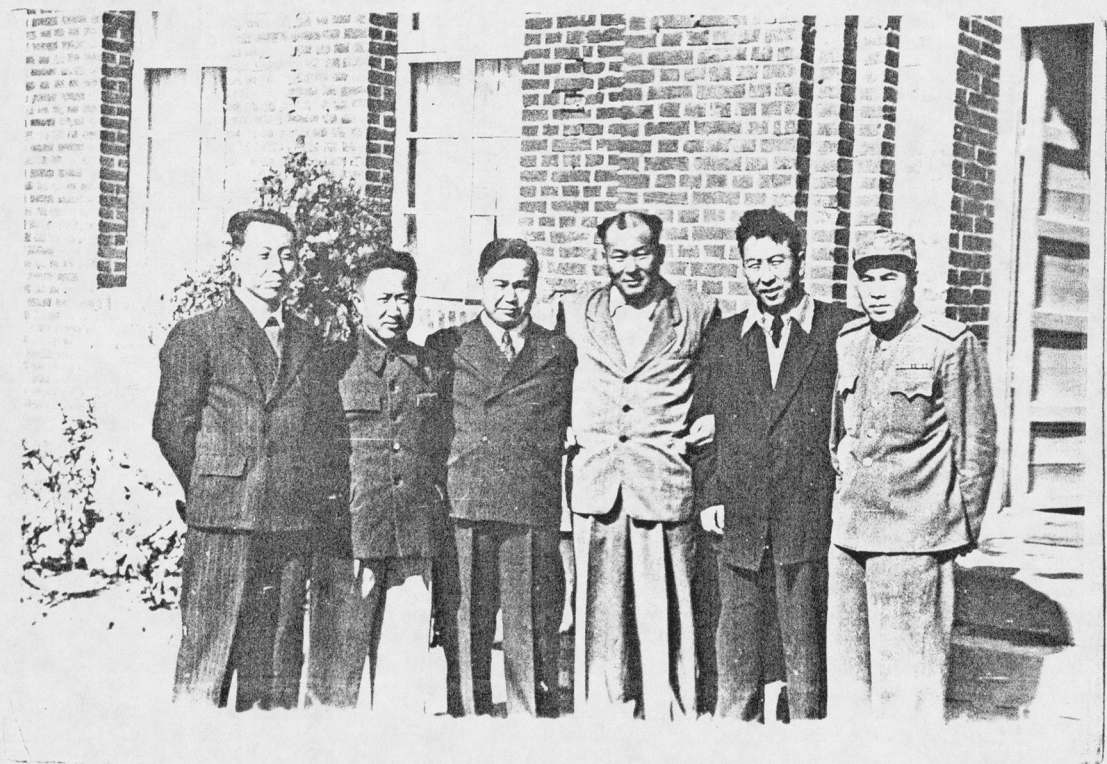
사진은 1945년에 다슈켄에서 촬영한 것이다. 좌로부터:  
 장남 아나톨리, 사모님 유수라, 김영환, 누나 김영희, 딸 클라라,  
 차남 뒤사리온, 조카 나다사.

어떻게 하여, 정학준이는 미역침에서 물에 깔고 앉아 죽이고, 김두환  
 이는 허복에 정배사리에 갔다가 물로 왔는데 중당 간부국에서는 안왔  
 다고, 지방에서는 물로 나왔다고. 하면서 중도에서 난 뒤화는 형식으로  
 간부를 없애 버렸다.

김영환 선생은 내각장부국 제9부장으로서 제실 때에는 뒤실있게  
 매일 출근시 승용차에 모셔가고 모셔오곤 하였지만 그 다음, 소  
 권과들어 거이다 복수러진 다음 1958년 2월 이후, 직무는 승  
 급이라 하면서, 최고연변회의 상립위원회 위원장실 보좌관이라



하였지만 그 당시 김영환 선생이 자신이 말한바와 같이 최  
 용건의 접대실 실장이지 아무것도 하든것이 없다고 하였다. 큰  
 본 책임은 접대실 홍명관으로써 금호 두 나라를 책임지라고 하였  
 으나, 최용건의 종국말은 김선생이 담당할수 없는것이요, 최용  
 하면 최용건의 복언이 종국버지고, 또 최용건이공공 광복군관  
 학교 졸업생이어서 종국말은 조선말말대로 더 싹싹의 말안의에,  
 또 그 당시 소련과는 관계가 갈등되어 있는 때였기 때 문  
 에 아무런 소련 기관은 상인위원회에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쓸모 없는 기관에 간부를 들여놓고 3년간어느 큰품은대  
 다가 그 다음에는 그 보다도 더 현실한 국립 농업을위한 변혁  
 원으로 조응하여 내려보내었다.



사진은 북한 생활의 밝이하기인 1960년에 김영환 선생이  
 농업을담사 권김현 겸-변역원으로 제실시에 촬영한것이다.  
 좌로부터: 리용건, 김필리림, 박영물, 주마트베이, 김영환, 김수원.  
 «조선통신» 신문을 부속필로 게시한 김영환 선생을 농업을담사  
 변역원으로 임명하여 내려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드리는 강직

어나 한가지였으며, 세 언저는 더 쓸 필요가 없으니 가시료 하는  
 것이었다. 1960년경에 이르러 보니 북한은 김일성의 계획대로  
 자기에게 필요없다고 생각한 간부들을 전부다 처단한 때였  
 다. 노련 출신 간부라고 인정된 사람으로써 중앙적복에 남아  
 있는 사람은 - 438 (영중 단 3명) - 남일, 김봉물, 김남인  
 등이었으며, 그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방학세, 최종학  
 이도 있었으나 언저는 그들마저 함흥나도에 내리보냈을  
 때였다.

김영환 선생은 이런 환경에서 자기조국은 떠나기 어려우  
 았으나, 특히나 김영환 선생은 조국에서 살며 일해야 될, 또  
 그렇게 준비된 간부로서, 그것은 한글상식이 가장 방탕하며,  
 한인들의 풍습, 예절 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눈  
 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소련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1961년 6월에 함흥에 돌아와 모스크바에 도착한  
 김선생은 당중앙 조직부의 파견에 의하여 월릉변강화  
 태도에서 발간하는 화태도당 기관지 <레닌의 길>  
 신문사 편집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김 선생은 화태  
 도에서 4년간 일하시곤 다시 당중앙의 허가  
 의하여 카사흐 공화국 우드 알라타에서 발간되는  
 한인들의 신문 <레닌의 길> 신문사에서 문화교  
 정원으로 일하시게 되었다. 김선생은 소련에 돌아  
 오신후 일은 몇 장소 옮겨다니며 하시었지만 항상  
 북한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며, 조국통일의 념원을  
 속에 품고 매일같이 기다리었다. 김선생은 1975년  
 에 평균생활에 나오게 되자 무르백한 허유겐트  
 에 가서 건강하신 복인 무수라, 아들 형제 딸하  
 나를 데리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1978년 4월  
 13일에 별세하시었다.